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Killing Paper 모의고사 1회 문제지 1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 수험 번호 [] - [] [] [] [] [] [] [] 제 [] 선택

1.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기준과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고 도덕규범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학문이다.
(나)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쓰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도덕 언어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다) 윤리학은 어떤 문화나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이다.

- 1 (가)는 도덕 이론을 정립할 때 (나)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나)는 '허용 가능한', '의무적인' 등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다.
3 (다)의 목표는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4 (나)는 (가)에 논리적으로, (가)는 (나)에 역사적으로 선행한다.
5 (다)는 (가)와 달리 학문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이론을 정립한다.

2.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정치는 이름을 바로잡는 것[正名]에서 시작된다. 이름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세워지지 않고,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
을: 성인(聖人)은 백성들이 간교한 지혜와 욕심을 품지 않게 하고, 무위(無爲)로 다스리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 현자를 높이지 않아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 1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후천적 수양의 과정이 필요한가?
2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법(禮法)을 멀리해야 하는가?
3 통치자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의 이익을 증진해야 하는가?
4 시비(是非)와 선악(善惡)을 명확히 구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5 통치자는 자신을 수양하기에 앞서 먼저 백성의 삶을 보살피야 하는가?

3. 다음 가상 편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친애하는 ○○에게
성스러운(0)에 대한 자네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편지를 쓰네. 우리는 나무를 단지 나무로 보면서도 동시에 나무 이상의 나무로 보기도 한다네. 앞의 나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나무로 속(俗)에 속하며, 뒤의 나무는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나무로 성(聖)에 속한다네. 이처럼 모든 것이 성성(聖性)을 부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성(聖)과 속의 이분법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일세. 이 모순은 사실상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지. 왜냐하면 어떤 것이나 다 성현(聖顯)이 될 수 있고, 역사의 어떤 시점과 공간에서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네. 물론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성현을 다 가졌던 종교와 인종 또한 없었겠지만 말일세.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적 구조에는 성스러운 것과 나란히 세속적인 존재와 사물이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지.

- 1 성스러운(0)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사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2 종교와 신화를 무의식 속에 은폐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존재한다.
3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공간과 그 외 공간 사이의 대립을 경험한다.
4 종교적 인간은 세속의 세계에서 성현을 체험하고 그에 따르고자 한다.
5 세계는 무질서한 혼돈 상태이지만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럽게 드러난다.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J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동체의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다. 어떤 행복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경우, 그 행동은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원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사 레>
고소독자 J는 자신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S에게 앙심을 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S를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S의 피소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검찰에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J는 S가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S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더 들여 항고*, 재정신청** 등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거칠지 고민하고 있다. 물론 J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S는 자신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확신하고 별다른 걱정 없이 잘 살면서 J와 그 가족을 측은해하고 있다.
* 항고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기소 또는 수사 재개 등을 요청하는 절차로, 인용율은 평균적으로 10% 내외이다.
** 재정신청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상급 검찰청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절차로, 인용율은 평균적으로 1% 미만이다. 재정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 경제적 능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2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함을 명심하세요.
3 수사기관의 행정력을 소모시킴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세요.
4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더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세요.
5 무분별한 고소 및 항고, 재정신청은 국가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킴을 명심하세요.

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나 권력을 그저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나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모든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제절명의 긴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과시 소비를 겨냥한 물품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밖으로 있어 보이는 체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할 정도의 음식과 불편까지도 참아 내는 것이죠.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한다면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아마도 가장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일 것입니다. 산업 사회에서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부의 경쟁으로 표현되며, 이는 과시적 형태의 소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보 기>
ㄱ. 하위 계급이 가지는 유일한 목표는 경제적 부의 획득이다.
ㄴ. 상위 계급은 경쟁적 비교 성향을 바탕으로 과시 소비를 한다.
ㄷ. 상위 계급은 현대 사회에서 과시 소비를 하는 유일한 계급이다.
ㄹ. 하위 계급은 빈곤한 상황에서 과시 소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삶과 죽음은 인간의 운명[命]이므로, 진인(眞人)은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본래 생명도 형체도 기(氣)도 없었고, 혼돈 속에서 기가 생겨 그것이 변하여 형체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죽음이 된 것이다. 삶은 기의 모임[습]이고, 죽음은 기의 흩어짐[산]일 뿐이다.
 (나) 오랜 세월이 흘러 대지(大地)가 다 무너지는 때가 오더라도, 무명(無明)에 덮이고 애욕(愛慾)의 결박에 묶였다면 생사윤회(生死輪廻)할 것이며,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유하면 개를 기둥에 묶어 둔 것과 같다. 그 개는 묶인 끈이 끊어지지 않는 한 오랜 세월 기둥 주위를 빙빙 돌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 ① (가): 삶과 죽음은 기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 ② (가): 삶과 죽음을 분별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도(道)에 일치해야 한다.
- ③ (나): 삶에서 겪는 늙음과 병듦의 고통은 죽음을 통해 영원히 종식된다.
- ④ (나):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生死一如]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⑤ (가)와 (나): 삶과 죽음의 순환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자연적 현상이다.

7. 갑이 을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과학자는 오직 연구 과정 중에 날조나 표절을 하지 않는 등의 내적 책임만을 지면 된다.
 을: 과학자는 연구 과정 중의 내적 책임은 물론 연구 결과가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하는 외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 ① 과학자에게 어떤 윤리적 책임도 부여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② 과학자는 과학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과학자에게 과학 기술의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음을 간과한다.
- ④ 과학자에게 과학적으로 타당한 지식을 발견할 책임이 있음을 간과한다.
- ⑤ 과학자에게 연구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을 책임이 있음을 간과한다.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하는 데 순위순 비결은 없다. 여기에 자금을 투여하는 것은 대개 바람직하지 않으며,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만민법에 의해 배제된다.
 을: 풍요로운 사회의 부유한 사람들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야 한다. 이것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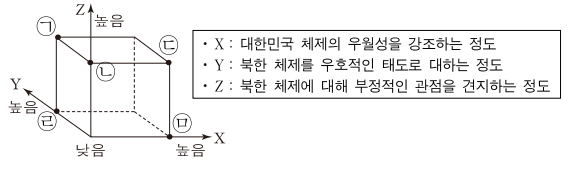
<보 기>

- ㄱ. 갑: 민주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한 강제적 제재가 허용될 수 있다.
- ㄴ. 갑: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는 모두 질서 정연한 사회이므로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ㄷ. 을: 절대 빈곤을 겪는 사람에 대한 원조는 풍요로운 사회의 시민이 무조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이다.
- ㄹ. 갑과 을: 원조 의무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원리가 존재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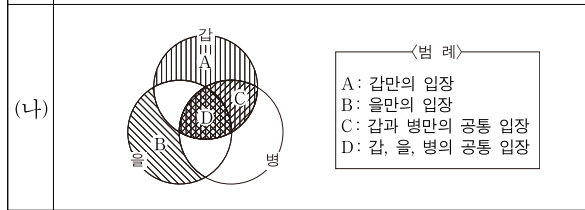
(가) 통일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 서고, 각자의 체제에서 좋은 요소들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북한 체제에서도 미래의 통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나) 통일은 대한민국의 체제 우위를 바탕으로 한 흡수 통일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북한 체제가 갖춘 어떤 요소도 미래의 통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은 생명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으로서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을: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을 가진 존재가 없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병: 인간과 같은 종(種)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를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보 기>

- ㄱ. A: 인간의 부차적 이익을 위해 인간이 아닌 생명체의 생명을 해쳐도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 ㄴ. B: 인간은 이성적 능력을 지닌 자율적 존재이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ㄷ. C: 인간에 대한 의무의 도덕적 근거는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 ㄹ. D: 인간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는 음악적인 수련이야말로 다른 어떤 수련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보네. 음악에서 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부로 파고 들어가서 우아함을 심어 주고, 올바른 자에게는 우아함을, 올바르지 못한 자에게는 추악함을 알게 해 줄 수 있네.
(나)	제자: 예술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 예술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

- ① 국가가 예술가의 예술적 자율성을 최대한 폭넓게 보장해야 하네.
- ② 국가가 예술 작품이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네.
- ③ 예술가가 미적 가치를 도덕적 가치보다 우선하여 추구해야 하네.
- ④ 예술가가 아름다움의 이데아 자체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네.
- ⑤ 예술가가 어떠한 것도 모방하지 말고 창의적 작품을 창작해야 하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한다.
을: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헌법의 존재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 ② 갑: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은 최종적으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판단된다.
- ③ 을: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므로 법치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
- ④ 을: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므로 합법적 수단의 사용을 확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왕도(王道)는 모든 사람이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냄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백성은 향산(恒産)이 있어야 향심(恒心)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음을 쓰는 사람[勞心者]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몸을 쓰는 사람[勞力者]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 의해 먹고 산다.

- ① 사회적 분업 체제하에서 각자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 ② 통치자와 백성의 본성은 같지만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은 다르다.
- ③ 통치자는 백성이 본래의 선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 ④ 통치자는 측은해하는 마음[惻隱之心]에 기반한 통치를 해야 한다.
- ⑤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향산이 없이는 향심을 가질 수 없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평화 상태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구축을 받아들인다.</p> <p>을: 자연 상태는 경쟁과 불신 등으로 인한 전쟁 상태이다.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연법을 지킬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p> <p>병: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완성은 국가이다. 자신의 본성상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없거나 이미 자족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p>
(나)	

- ① A: 사회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들은 국가의 주권을 자님을 간과한다.
- ② B: 사회 계약은 전쟁 상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됨을 간과한다.
- ③ C: 국가가 형성되는 데 인간의 본성이 영향을 미침을 간과한다.
- ④ D: 국가는 주권자와 시민 간의 자발적 계약으로 형성된 인위적 산물임을 간과한다.
- ⑤ E: 국가는 개인의 행복한 삶과는 무관한 공적 결사체임을 간과한다.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국제 정치에서의 본질은 권력 투쟁이다. 권력은 국제 정치에서 최상이라고 인정되는 가치이며, 정치적인 정책은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을:	공화 정체인 국가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평화 연맹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고자 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적 체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p>가. 갑: 국가 간 힘의 불균형은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상승시킨다.</p> <p>나. 을: 국제 연맹의 필요성은 타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에 있지 않다.</p> <p>다. 을: 국가는 국가 내의 국민과 달리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될 수 없다.</p> <p>라. 갑과 을: 개별 국가의 주권을 폐지하지 않아도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p>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p>* 확인 사항</p> <p>○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p>
